

남장현 기자의 피버피치

‘김학범호’ 텅빈 실전 스케줄 ‘WC예선 상대국’은 어떨까?

벤투호 6월부터 튀르키예 등과 최종예선 상대국을 경기 없는 날 평가전 해볼 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느낌도 나쁘지 않는데...”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둔 올림픽축구 대표팀 김학범 감독이 갑자기 말을 멈췄다. 실전 공백에 대한 속내를 물었을 때다. 올림픽대표팀의 최대 고민은 텅 비어있는 스케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일상을 바꿨고, 축구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각종 연례별 국제대회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김학범호’도 타격을 입었다. 올림픽대표팀은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23세 이하(U-23) 친선대회에서 이집트, 브라질과 맞선 뒤 공식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지 않았다. 1월 강릉·제주도에 캠프를 차렸고, 3월엔 A매치 휴식기를 이용해 경주에서 선수들을 모았다. 소집훈련 중 K리그 팀과 연습경기를 치르며 새 얼굴을 확인했고, 조직력과 팀 완성도를 체크했다. 하지만 연습경기가 다른 국가 올림픽대표와 평가전을 대체할 수 없다. 낯선 상대와 싸우다보면 국제 경쟁력이 차츰 오르기 마련이다. “자꾸 꺼져봐야 현실을 알 수 있다. 어려운 경기를 할수록 실력이 쌓인다”는 게 김 감독의 지론이다.

도쿄올림픽 본선 조 추첨은 21일 열린다. 올림픽대표팀간의 평가전은 요원하다. 코로나19의 핵심 방역지침 중 하나가 해외여행 직후 자가격리다. 그로 인해 선수단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국내로 팀을 초청해 평가전을 갖는 것도 어렵다. 특별허가도 필요하다.

올림픽 개최국 일본은 적극적이다. 일본은 방역지침을 완화해 친선경기를 개최하며 자국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3월 아르헨티나와 2차례 평가전을 했고, 6월과 7월엔 스페인 등 해외 팀을 초청한다.

현실만 탓하며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다. 어렵다면 직접 만들어야 한다.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상대국이라도 접촉했으면 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튀르키예·메니스탄, 레바논, 슬리랑카, 북한을 국내로 불러 최종예선 진출을 가린다. 같은 기간 올림픽대표팀도 최종 엔트리 선정을 위한 마지막 담금질에 나선다.

월드컵 2차 예선 국내 개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추진됐다. 축소·경기장·훈련장 이외의 이동은 엄격히 제한되는 ‘버블’ 형태다. 타국 선수단은 일정이 제각각이다. 이들 국가의 경기가 없는 날 ‘김학범호’의 평가전을 추진하는 걸 고려할 만 하다. 소정의 대진료를 지급하면 평가전이나 연습경기의 성사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그들 입장에서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고, 훈련의 효과를 누리며 대전로도 챙길 수 있다. 올림픽 본선에 나서는 팀이 아니라 점은 아쉽지만 지금처럼 기약도, 대책도 없이 마냥 기다리는 것보단 낫다. yoshike3@donga.com

SNS에 ‘소니 데이’...토티넘, 기살리기 팔 건어



손흥민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가 ‘손흥민 기살리기’에 나섰다. 토트넘은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17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파크에서 열린 에버턴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원정경기를 앞두고 훈련 중인 손흥민을 비롯한 팀 선수단의 모습을 공개했다. 특히 ‘소니 데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손흥민의 유쾌한 표정만을 따로 추려 눈길을 끌었다. 1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홈경기에서 전반 33분 스코트 맥토티미가 휘두른 팔에 얼굴을 맞고 쓰러진 손흥민은 이후 온라인상에서 인종차별적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날 훈련장에서 건강한 웃음을 되찾아 팬들이 안심하고 있다.

맨시터-PSG, UCL 4강서 붙는다

레알 마드리드는 첼시와 맞붙어 오는 28일·5월 5일 홈&원정 대결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첼시(잉글랜드). 2020~2021시즌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이하 UCL) 4강 대진이 확정됐다.

맨시터는 15일(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 지그날 이두나파크에서 열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 UCL 8강 2차전에서 2-1로 이겼다. 필 포든이 1차전에 이어 또 다시 결승골을 넣어 4강에 올랐다.

같은 날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도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잉글랜드)과 UCL 8강 2차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1·2차전 합계 1승1무로 준결승에 합류했다.

이로써 이번 시즌 UCL 4강에 맨시터, 레알 마드리드, PSG, 첼시가 오른 가운데 맨시터와 PSG,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가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게 됐다.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저 준우승에 머물렀던 PSG는 킬리안 음바페, 네이마르, 앙헬 디마리아 등 화려한 공격진을 자랑한다. 16강전에서 리오넬 메시가 버티고 있는 바르셀로나(스페인)를 완파했고, 8강 전서도 바이에른 뮌헨을 격침시키며 설욕했다. 시즌 중 지휘봉을 잡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PSG 감독은 뛰어난 지도력으로 자신의 커리어 사상 첫 UCL 우승을 노린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서 압도적인 선수를 달리며 우승 가능성이 높은 맨시터도 사상 첫 정상을 버리고 있다. 맨시터는 아직까지 UCL 결승 무대를 밟은 적이 없다. 지난 시즌에도 8강에서 올랭피크 리옹(프랑스)에 졌다.

지네딘 지단 감독이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는 명실상부 UCL 최고의 팀이다. 우승만 무려 13차례나 차지했다. 2017~2018시즌 이후 3년만의 정상 도전이다.

시즌 중 프랑크 람파드 감독을 경질하고 토마스 투헬 감독을 선임한 첼시도 기세 좋게 4강에 올랐다. 2011~2012시즌 이후 9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꿈꾼다. 첼시가 레알 마



맨체스터 시티 펠 과르디올라 감독(왼쪽)이 15일(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 지그날 이두나파크에서 열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UCL 8강 2차전에서 골을 넣은 필 포든(가운데)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1·2차전 모두 2-1로 승리한 맨시터는 4강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결승진출을 다툰다. 도르트문트(독일) | AP뉴시스

드는 명실상부 UCL 최고의 팀이다. 우승만 무려 13차례나 차지했다. 2017~2018시즌 이후 3년만의 정상 도전이다.

시즌 중 프랑크 람파드 감독을 경질하고 토마스 투헬 감독을 선임한 첼시도 기세 좋게 4강에 올랐다. 2011~2012시즌 이후 9년 만에 두 번째 우승을 꿈꾼다. 첼시가 레알 마

드리드를 꺾고, PSG가 맨시터를 따돌린다면 지난 시즌까지 PSG 지휘봉을 잡았던 투헬 감독이 친정 팀과 결승서 만나게 된다.

한편 UCL 4강전은 이달 28일과 다음달 5일 각각 홈&원정으로 열리고, 결승전은 다음달 30일 터키 이스탄불서 단판 승부로 펼쳐진다. 최현길 기자 choi92@donga.com

18일 K리그1 10라운드...전북·성남 선두권 다툼

22골 ‘창’이나? 4실점 ‘방패’냐?

(9경기)

(9경기)

전북, 9경기연속무패로 단독 선두 김상식 감독 “최대만 많이 넣겠다” 성남, 물리치 퇴장에 더 수비 집중 김남일 감독 “신중하게 접근할 것”



진정한 창과 방패의 충돌이 K리그1(1부) 무대에서 펼쳐진다.

전북 현대와 성남FC가 1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10라운드에서 격돌한다. 흥미진진한 선두권 다툼이다. 시즌 개막 후 9경기 연속 무패(7승2무)의 전북은 승점 23으로 단독 선두에 올라 있다. 4승 3무2패(승점 15)의 성남은 2위 울산 현대(승점 20)에 이은 3위에 랭크됐다.

일단 두 팀의 컬러는 전혀 다르다. 김상식 감독이 추구한 ‘화공(화려하고 화끈한 축구)’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전북은 9경기에서 22골을 몰아친 반면, 김남일 감독이 이끄는 성남은 가장 적은 실점(4골)을 자랑하고 있다.

다만 전북이 공수 밸런스가 보다 안정적이다. 7실점 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성남, 울산(16골·6실점)보다는 많은 골을 내줬으나 7위 제주 유나이티드(승점 12, 8골·7실점)와 어깨를 나란히 한 수처다.



18일 전주성에서 열린 K리그1 10라운드에서 격돌할 전북과 성남은 창과 방패의 대결로도 큰 관심을 끈다. 전북 김상식 감독(왼쪽)은 막강한 화력으로, 성남 김남일 감독은 특유의 ‘짙은 수비’로 경기를 풀어간다는 복안이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성남은 화력이 강하지 않다. 7득점을 올렸다. ‘꿀짜’ 수원FC(승점 6, 6골·15실점)보다 1골 더 넣은 기록이다. 그러나 바퀴 말하면 그만큼 뒷안이 안정적



이고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한다고 볼 수 있다. 적은 득점으로도 살리를 챙기는 셈이다.

다가올 전주성 대결은 지금까지의 색

체가 더욱 짙어지는 90분이 될 전망이다. 이유가 뚜렷하다. 성남의 장신 골잡이 물리치가 지난 주말 광주FC와의 9라운드 홈경기에서 경고 2회로 퇴장을 당해 전북 원정길에 동행할 수 없는 탓이다.

광주전에서 물리치는 전반 14분 선제골에 이어 후반 9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받은 뒤 드리블 돌파해 골 망을 갈랐다. 리그 3·4호 골에 성공한 물리치는 전반에 받은 옐로카드를 깜빡 잊고 포효하며 상의를 벗었다가 경고가 추가돼 2라운드를 떠났다. 외신에도 등장할 만큼 물리치의 행동은 황당했으나 성남 수비는 특유의 탄탄함으로 광주의 맹공을 버텨 값진 승점 3을 챙겼다.

핵심 골키퍼가 빠질 성남은 선택의 여지없이 ‘선 수비-후 역습’으로 나서야 하고, 전북은 득점 선두(7골) 일류첸코와 구스타보 등 최전방과 한교원·이승기·김보경·김승대·쿠니모토 등 든든한 2선 공격진을 총동원해 K리그1 최강 방패를 뚫어야 할 입장이다.

김상식 감독은 “선전전도 최대만 많이 넣고 이기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고, 김남일 감독은 “전북 원정 구상을 철저히 하고 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대전하나 vs 서울E...내일 ‘K2 선두’ 놓고 대격돌

(리그 1위)

(승점 1점차 2위)

대전하나, FA컵 수원전 선전 자신감 ‘서울더비’ 첫 승 서울E도 기세등등 상대전적도 똑같아...팬들 관심 집중



‘하나원큐 K리그2(2부) 2021’의 최대 빅뱅이 펼쳐진다.

대전하나시티즌과 서울 이랜드FC가 17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정규리그 7라운드에서 충돌한다. 리그 1·2위 간의 대결이다.

6라운드 현재 4승2패, 승점 12의 대전하나가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서울 이랜드는 3승2무1패, 승점 11을 쌓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5라운드까지 서울 이랜드가 무패 행진을 내달리며 선두였으나 지난 주말



대전하나 이민성 감독 서울이랜드 정정용 감독

충남 아산에 0-1로 일격을 당해 1위 자리를 내줬다.

두 팀의 경기는 항상 치열했다. 상대전적 6승7무6패로 똑같고, 최근 10경기 역시 3승4무3패로 팽팽했다. 다만 최근의 무게

는 서울 이랜드에게 쏠렸다. 2019년 10월부터 대전하나에 4경기 연속 무패(2승2무)로 우위를 점했다.

14일 진행된 ‘2021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에서 대전하나와 서울 이랜드는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K리그1(1부) 수원 삼성을 안방으로 불러들인 대전 하나는 1-2로 패했고, 사상 첫 ‘서울 더비’로 이목을 집중시킨 FC서울 원정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대전하나가 얻은 소득은 적지 않았다. 스코어에서만 뒤졌을 뿐, 경기력은 오히려 앞서거나 거의 대등했다. 외국인 공격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2진에 가까운 멤버들이 출동했음에도 우세했다. 이민성 대전하나 감독이 “여러 모로 실보다 득이 많은 경기”라고 자평한 까닭이다.

서울 이랜드는 역사적인 첫 서울 더비에 서 승리라는 결과(실리)와 자존심을 모두 챙겼다. 레안드로, 베네가스 등 외인 공격진을 비롯한 주력 일부를 벤치에서 출발시켰음도 서울 이랜드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목격했다. 스리 백으로 구성된 수비라인은 탄탄했고, 역습은 효율적이었다. 충남 아산전의 아쉬움을 말끔히 씻었음은 물론, 자신감까지 채웠다. “부임 2년차부터는 성과가 필요하다. 승부수를 띄울 때”라던 정정용 감독의 의지가 통했다.

두 팀은 적절한 폭의 선수단 로테이션으로 주말 빅뱅을 대비해왔다. 대전하나의 선두 수성이나, 서울 이랜드의 선두 탈환이나, 다가올 90분 결과에 K리그2 선두 판도가 흔들린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